

<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자 >

로마서 9:14-16 / 새찬송가 9장 (통일 53장)

1. 인간의 노력이나 하나님의 은혜냐?

인생은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인본주의의 길과 신본주의의 길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노력으로만 나아가는 길이고,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역사진보주의는 인간의 지식과 노력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이 발전하고 인간이 노력할수록 다양한 질병과 저주의 문제들, 특히 핵전쟁과 교묘한 사기 등의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역사진보주의를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나아지지 않는 것은 인간의 삶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지식이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세상을 잘 되고 좋게 만듭니다(롬 4:6-8).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 중요한데, 이러한 삶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중국식 실용주의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는 마무리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고 두고 후환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노력하시고 일하시는 것인데, 마무리가 깔끔합니다(시40:2).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잘 나가다가도 졸지에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넘어지더라도 아주 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시37:23,24).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2.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Kyrie eleison)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과 연관됩니다(롬9:16). 이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체험한 사건들을 보면 모두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까닭인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매오가 눈을 뜨는 은혜를 받은 것

은 자신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막10:46-48). 또한 죽은 독자가 살아나는 은혜를 받은 것도 그의 과부 어머니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눅7:11-14). 이처럼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은혜로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막14:14).

그렇다면 누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롬9:14,15)

첫 번째로,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입니다. 여기에서의 겸손은 마음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입으로 고백할 줄 아는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 많음을 알고,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같이 위대한 사람도,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 아닌, 죄가 가득한 인간 본성으로 인하여 깊은 슬픔과 절망을 느끼며 탄식하였습니다(롬7:24).

두 번째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롬11:30). 그러나 이방 여인이며 과부인 룻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아,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룻1:16).

세 번째로,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체가 축복 받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마18:31-35).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과 성품을 비판할 줄 모르고, 계산적으로 타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어머니를 닮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적용&실천>

오늘부터 하나님의 긍휼(불쌍히 여겨주심의 은혜)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로 다짐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자비롭게 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